

“ 목숨보다 귀한 것 ”

■ 이종윤 원로목사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사람이 사는 곳엔 반드시 종교가 있다. 그러나 생산성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의 자리는 점차 왜소해지고 있다.

어떤 분이 대학교 총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목사로 섬김의 자리를 옮길 때 놀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간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종교 신앙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를 하나의 장신구 정도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상품화하거나 생활의 도구화하여 행복의 촉매로 여기는 거짓 종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경직된 무거운 모습이므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가볍고 즐거운 예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에 집중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백미터 출발선에 서 있는 국가대표 선수의 긴장감은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환호성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그 순간 긴장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인간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인생이란 선택이다. 한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결과로 갈라진다. 입시생이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살 곳이나 영원한 것에 대한 오늘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뛰어난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선택을 신중하게 지혜있게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길에서 들은 것을 신중한 생각없이 말해 버리는 도청도설(道聽塗說)하는 자나, 자기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자를 가리킨 당랑거嬢(螳螂拒輶)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광포 잔인하고 지혜가 없는 군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장자(莊者)는 우선 신중하게 자신의 품행을 바로 잡아 상대가 감화하도록 힘쓰라, 당랑(사마귀)처럼 두 발을 지켜두고 차바퀴에 덤비는 방법으로는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앞으로 나아갈 출만 알지 뒤로 물러 설 줄 모르는 사마귀는 제 분수도 모르고 장공이 탄 수레의 힘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업신여기며 덤비는 미련한 놈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받은 다음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할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분별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01호] 2011년 12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0:1-6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Occurred as Examples”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해정, 양해성)허준(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김보디아), 전호진(미안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판, 사지, 에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상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지연(미국)스카리),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평(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경(캐나다), 김중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루로, 비사누(보도, 보디스도, 린롬, 수근존(방글라데시), 박명성(총회),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사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사무엘이 늙었으나 ”

■ 삼상 8:1-9

교회는 장로들과 권사 직분을 가진 어르신들의 성향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라 불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 거룩한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비극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전쟁, 살인, 욕심, 시기, 질투, 도둑질, 강간과 허영, 욕심, 갈등, 심지어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첫 장부터 열가나 가정의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브닌나 간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사무엘의 일생
 사무엘서에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또 사울과 다윗은 각 각 노년층과 청소년층, 장년층과 청년층, 청년층과 청소년층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가족 간의 조그만 갈등에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이후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8장 1절에는 ‘사무엘이 늙었나’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사무엘 일생의 후반부의 서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25장 1절에 가서야 그의 죽음이 기록 됩니다. 사무엘서는 무려 17장에 걸쳐서 사무엘의 일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은 인생 후반부에도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귀감과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돈을 받고, 공경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삼상 8:3-5)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로써의 권위와 위엄을 가졌습니다.

2.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이가 많았고 세속적인 대접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천막에서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그의 후반부 인생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보냈으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 신행일치의 청빈한 삶을 살은 모법적인 신앙인을 꼽으려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가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빌 35-8)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중장년과 노년세대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가 경제적 생산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은 우리들의 시각에 보인다고 해서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것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점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마저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유형적 생산가치와 사고로 개개인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적 역량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역량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왕과 국가를 돕고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전심을 다해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윤동녕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34:8-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4(시 46)...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04(40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상 16:14-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다윗의 첫 사명”... 윤동녕 목사

* 찬 송 Hymn321(35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27:1 인 도 자

찬 송 310(410) 다 합 께

기 도 류충기 집사

성 경 갈 1:1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설 교 자

* 찬 송 288(204)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정숙 권사

성 경 막 6:30-4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오병이여의 이적” ... 설 교 자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삼상 8:9)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지난주			
수요 II부	시 은	최유현	김예지	조현경	성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p>◆ 모 임</p> <p>1. 권사회 월례회 / 25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p>	<p>◆ 알 림</p> <p>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p> <p>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사-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p> <p>2. 102호 예배</p> <p>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p> <p>3. 403호 예배</p> <p>영아부 : 주일 오전 9사-오후 6시</p> <p>4. 602호 부서 모임</p> <p>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p> <p>5. 603호 부서 모임</p> <p>소망부 : 주일 오전 10사-11시, 오후 1사-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p> <p>6. 609호</p> <p>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30분</p> <p>7. 701호 예배</p> <p>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8. 706호 예배</p> <p>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9. 802호 예배</p> <p>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10. 902호</p> <p>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p> <p>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p> <p>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p> <p>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p> <p>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8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윤동녕 목사 (서울장신대 구약신학 부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5명	238명	181명	1,284명	13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1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18일	헌 금	23,490,500	
	특별예배비		3,510,000
	교회학교운영비		352,00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26,600
	구 제 비		1,30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600,000
	복리후생비		253,300
	통 신 비		381,380
	차량유지비		778,163
	도서인쇄비		270,000
	소모품비		447,790
	환경유지비		121,800
	수선유지비		254,330
	식당운영비		962,690
	합 계	23,490,500	9,808,053